

의대 유치 순천·목포 갈등 부르고 방사광가속기 ‘말 뒤집기’

전남 핵심이슈 놓고 스텝 꼬인 민주당...선거판 막판 변수 부상

충선 D-1

30년 전남지역 숙원사업인 '전남권 의과대학 유치'와 방사광가속기 전남 유치사업 등이 4·15 총선 막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광주와 전남의 해묵은 현안사업인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는 이번 총선기간 수면 아래로 가라앉으면서 여론 등 지역 정치권이 이를 외면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남권 의대 유치사업의 경우 선거 초반만 해도 '30년 숙원 전남권 의대 유치'라는 전남도 공약 건의사업을 민주당 전남도당이 받아들이면서 잡음 없이 출발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전략공천한 소병철 순천·광양·곡성·구례갑 후보에게 중앙당 차원의 화력을 집중하면서 되레 전남 동부권과 서부권 간 지역갈등을 부추겼다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달 29일 이낙연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은 순천을 찾아 의대 설립이 포함된 전남 동남권 후보 공동정책 이행협약식을 개최한 것이 발단이 됐다. 이어 지난 12일에는 양정철 민주당연구위원이 순천을 찾아 소병철 후보와 동남권 의대 유치 정책협약식을 하면서 잡음을 더욱 키웠다. 이에 전남 목포 등 서부권의 야권 후보들이 즉각 거세게 반발하면서 '전남권 의대 유치'가 이번 선거판의 핫 이슈로 떠올랐다.

목포에 출마한 정의당 윤순하 후보는 13일 "민주당이 또다시 목포시민의 염원인 목포대 의대를 선거에 이용하고 팔아먹었다"고 사학 회견을 감행했다. 지난 12일 순천에서 동남권 의대 유치 정책협약식을 가진 양정철 원장을 겨냥해서는 "전남을 동서로 갈라놓는 당선은 지역 분열을 조장하는 적폐다. 문재인 정부의 개혁 성공을 위해 당장 사퇴하라"고 직격했다.

중앙당 입장에서는 박빙선거 후보로

전략공천 소병철 구하려다

목포지역 민심 건드려

이해찬 방사광가속기 말 바뀌

광주 군공항 이전 공약화 실패

분류되는 소병철 후보를 지원한다는 의미였지만, 의대 유치를 놓고 순천과 경쟁하는 목포지역 후보자와 목포 지역 민심을 건드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으로서 전략공천 후보자를 살리고, 18·20대 국회에서 의원을 배출하지 못한 순천을 되찾아야 한다는 입장이 강하겠지만, 정도가 지나쳐 보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에서조차 "소병철 후보 구하려다가 목포 김원이를 위태롭게 한다"는 발언이 나왔다.

양 원장은 사전 민주당 전남도당과 협의는 물론 일정 공지조차 없이 순천을 방문했다가, 당 안팎에서 논란이 커지자 뒤늦게 13일 김원이를 후보와도 동일한 정책협약식을 가졌다. 그러면서 성명을 통해 "전남권 의대 유치를 마치 목포냐, 순천이냐로 의 지역간 갈등으로 몰아가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민주당은 전남 도내에 의대를 설립하겠다는 공약 추진을 위해 동남권과 목포 김원이를 후보와도 정책연구와 공동 논의를 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지원 후보 측은 "양 원장의 목포 방문도 시민을 우롱하는 궤변이고 말장난이다. 이미 얼얼해진 물"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이는 등 선거 막판 민주당의 '전남권 의대 유치' 논란을 키워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해찬 당 대표의 '방사광가속기 말 뒤집기' 논란 역시 후폭풍이 이어지면서 항

후 전남 선거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 대표는 지난 8일 오전 광주를 찾아 "(1조원대 사업규모인) 4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를 전남에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가, 오후에 자신의 발언을 뒤집었다. 전남과 함께 유치전에 뛰어들던 충청·경북·강원 등 전국 4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충청권 민주당 후보들과 미래통합당 반발이 커지자 "충북과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겠다는 부분의 발언이 생략된 것"이라고 발언을 정정하는 것이다.

이에 가칭 '호남 방사광가속기 설치 촉구 범시민 연합'은 13일 관련 성명을 내고 "충북과의 공정경쟁을 보장하겠다는 이해찬 대표의 발언에 아연실색했다. 경쟁지역은 충청만이 아니라, 네 군데가 더 있다. 그런데도 이 대표는 유독 충청과의 공정경쟁을 강조했다"며 "정부와 민주당이 이미 방사광가속기를 충청에 설치하기로 작정하지 않고서야 그런 주장을 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민주당과 정부를 동시에 비판하고 나섰다.

이처럼 전남권 의대 유치 논란과 방사광가속기 전남 유치 사업에 민주당이 잇박가 행보를 보이면서 선거 막판 변수가 될 전망이다. 경쟁지역 일부 선거구에서는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광주시·전남도의 주요 현안사업으로 수 십년째 진척이 없는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의 경우도 광주시와 전남도가 이번 총선에서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서 정치권마저도 이를 외면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광주시, 전남도가 집권 민주당을 향해 "정부가 책임을 지고 군공항 재원 마련 등 이전 사업을 추진해달라"는 공약을 건의하고 관철했어야 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수화시키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한, 지역 정치권도 표심에만 신경을 쓰느라 '뜨거운 감자'인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를 외면했다는 지적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민주당-시민당 합동선대위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상임선대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강태웅 후보자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합동 선거대책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위기서 더욱 빛난 달빛동맹

대구 코로나 확진자 30명

광주 치료 끝내고 모두 퇴원

달빛(달구벌·빛고을) 동맹 병상 나눔으로 광주에서 치료받던 코로나19 대구 확진자들이 치료를 마치고 모두 돌아갔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 빛고을 전남대병원에서 치료받은 대구 확진자 30명이 지난 12일 퇴원한 가족을 끝으로 모두 완치됐다. 병상 부족으로 애태우는 대구 확진자들을 이송해 치료하겠다는 광주 공동체의 특별담화가 발표된 지

43일, 대구 환자가 처음으로 광주에 입원한 지 40일 만이다. 당시 특별담화에는 광주시, 5개 자치구, 시의회, 시교육청, 오월단체, 보훈단체, 종교계, 경제계, 시민사회, 의료계 등 각급 기관, 단체가 참여했다.

퇴원한 가족들은 시장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병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막막했던 입원에서부터 가슴 벅찬 퇴원까지' 광주시민이 가슴으로 보여준 환대에 감사를 표시했다.

빛고을 전남대병원에는 퇴원 환자들이 보낸 편지, 참의 상자가 줄을 이었으며 광주시에도 경북 성주 참의 10상자가

배달됐다. 대구 달서구 학부모 봉사 모임인 달서 사랑 봉사단은 광주시 자원봉사센터에 성금 115만원을 기부하기도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의 특별담화는 지역 사회감염을 우려해 대구 확진자 수용을 망설이던 다른 지자체의 동참을 끌어내는 등 재난 상황에서 지자체 간 새로운 협력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며 "병상나눔은 영호남 화합의 초석을 놓아 광주와 대구의 달빛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는 성과를 남겼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전남 40여 시민단체 “방사광가속기 나주에 설치해야”

4·15 총선의 호남권 최대 이슈로 부상한 제4세대 방사광가속기를 전남 나주에 설치해야 한다는 각계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40여 개 광주·전남지역 시민단체들은 13일 방사광가속기와 관련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방사광가속기로 호남을 우롱하지 말고, 균형발전 차원에서 나주에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는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모 신청 마감을 앞두고 충북 등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전남도는 부지적성, 미래 확장성, 지역균형발전 등 전남의 장점을 최대한 부각시키기 위해 전력

을 기울이고 있다.

20여개의 광주지역 시민단체로 구성된 광주시민단체협의회와 10여개의 전남지역 시민단체로 구성된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는 성명서에서 "지난 8일 호남 발전의 젖줄이 될 방사광가속기 호남 설치를 약속했던 이해찬 대표가 하루 만에 약속을 뒤집었다"며 "충북과의 공정경쟁을 보장하겠다고 말을 바꿨는데, 이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호남 방사광가속기를 포함해 가속기 연구시설도 전무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들 단체들은 "포항, 경주, 대전, 부산

등 충청과 영남지역에 4개의 가속기가 포진해 학계와 산업 발전을 견인하고 있으며, 이번 방사광가속기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한전공대와 함께 호남에 배치되어야 하는 것이 순리"라고 지적했다.

이번 공모의 평가기준 역시 충북에 유리하다는 입장이 밝혔다. 인근 지역의 연구 자원과 접근성이 주요 배점으로 했기 때문이다. 충북에 오창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대전에 '대덕연구단지' 중이온가속기가 설치돼 연구 자원면에서 전남을 압도한다는 것이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

문 대통령 지지율 54.4%...1년 5개월 만에 최고 리얼미터 여론조사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지지도(긍정 평가)가 54.4%로 1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6~10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22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한 결과 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0.7%포인트 오른 54.4%로 집계됐다.

이는 리얼미터 조사 기준으로 2018년 11월 1주 차 조사에서 55.4%를 보인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반면, 부정 평가는 0.9%포인트 내린 42.3%로 나타났다.

문 대통령 지지도는 보수층(23.5%→27.4%)과 중도층(49.6%→50.9%), 경기·인천(56.1%→58.4%), 서울(53.5%→55.4%), 20대(49.7%→52.0%), 60세 이상(43.4%→45.4%) 등

에서 상승했다.

리얼미터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해 정부가 대응을 잘했다는 평가가 대통령 지지도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4·15 총선을 앞두고 진보진영이 결집한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자세한 여론조사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